

유아의 창의성 향상을 위한 WISE-CANDY 코칭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이진아* · 이소희**

본 연구는 유아의 창의성 향상을 위해 코칭모델을 개발하고 그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론적 배경이 되는 긍정심리와 코칭 및 창의성과 관련된 이론을 토대로 유아의 창의성 향상과 코칭의 유기적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코칭 접근으로 유아의 잠재된 재능을 효율적인 방법으로 끌어낼 수 있는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 개발한 [WISE-CANDY 코칭모델]을 구성하였다. 개발된 코칭모델은 기존 이소희(2008)가 개발한 WISE 코칭모델을 개념모델로 하고 창의성 향상에 필요한 요소를 새롭게 연구하여 개발한 CANDY 코칭모델을 실행모델로 하여 확장·통합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구성한 코칭모델의 타당도 검토를 위해 전문가 조사를 진행하였다. 참여 전문가는 코칭과 창의성, 유아교육에 관하여 박사논문을 작성한 박사학위 소지자,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장, 창의교육센터 원장으로 재직 중이면서 국내의 KAC, KPC 코치 자격을 지닌 전문 코치 6명이다. 전문가에게 이메일을 통해 모델개발 구성 자료에 관해 묻는 문항(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과 인터뷰 질문에 대해 피드백을 받았으며, 이를 수정 반영하여 모델의 적합도를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개발한 [WISE-CANDY 코칭모델]의 타당도는 평균 3.51점으로 그 적절성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이론적 측면, 방법적 측면, 실천적 측면에서 살펴보았으며, 유아의 창의성 향상에 코칭모델의 실질적인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 유아의 창의성, 창의 코칭, WISE 코칭모델, CANDY 코칭모델, WISE-CANDY 코칭모델, 창의적 대화기술

논문투고일: 2022. 01. 28.

최종심사일: 2022. 03. 10.

게재확정일: 2022. 03. 18.

*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아동복지학부 박사수료

**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아동복지학부 명예교수

Corresponding Author : Lee, So-Hee. 100 Cheongpa-dong, Yongsan-gu, Seoul, Sookmyung Women's University, Korea. 04303. E-mail : leesohee1972@sm.ac.kr.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어제 가르친 그대로 오늘도 가르치는 건 아이들의 내일을 빼앗는 것이다.” 미국의 교육학자 존 듀이의 말이다. 현재는 4차 산업혁명의 인공지능, 로봇기술, 생명과학 등 다학문 간의 융합이 주도하는 시대로서 사람과 사물 그리고 공간이 다양한 방식으로 초연결되어지는 사회로 변화되고 있다(이연화, 2020). 또한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더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사회, 문화적 환경 속에서 앞으로 미래에 어떤 교육이 더 중요하며 더 필요한 교육은 무엇인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누구도 겪어보지 않은 새로운 변화에 직면하면서 사회의 다양한 문제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창의성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GE의 임원이었던 Beth Comstock(2018)은 저서 <진보를 꿈꿔라 Imagine It Forward>에서 미래의 가능성을 재창조할 창의력을 지녀야 한다고 아래와 같이 강조하였다. “세상은 오늘보다 절대 느려지지 않을 것이다. 번영하기 위해서 모두가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 우리는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고 미래를 위해 투쟁할 상상력과 용기가 있는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하다.” 창의적 인재에 대한 고민은 교육의 필요성으로 이어진다. 현재 아이들은 코로나 시대를 넘은 감히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상상도 못 할 시대를 살아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에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이에 따라 미래 인재의 교육의 핵심역량으로 문제해결력과 창의성 기반에 따른 자발성, 상상력,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지혜가 중요함이 강조되고 있다(김은형, 2021). 이를 위해 어른들은 아이들을 위하여 용기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더 나은 미래가 올 것이라는 희망으로 교육을 바라봐야 한다. 미래 인재 교육은 새로운 미래 사회에 대응하며 새로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을 위해 장기적인 안목과 믿음을 가지고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2021년 11월 교육부의 개정 교육과정은 ‘예측할 수 없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 혁신 필요’를 내세우며 지식과 정보의 폭발적 증가에 따라 단편적 지식의 습득보다 학습한 내용의 삶의 맥락에서 적용하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학생의 자기 주도성과 선택을 확대하고 학생의 자발적 참여와 실천을 위해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을 강화하며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창의적인 탐구 능력’과 ‘학생 자신의 자기 주도성’을 매우 강조하

고 있다(교육부, 2021). 이는 당면한 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모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미래 핵심역량을 키우는 교육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학습자들이 디지털 전환에 따른 해결해야 할 다양한 문제, 기후환경 변화 및 학령인구 감소 등 미래 사회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초소양과 역량을 함양하여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를 위해 교육의 체제를 혁신하고자 추진된 내용이 반영된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잠재능력을 이끌어 수 있는 교육환경은 기존의 교육 방법을 넘어 새로운 교육 방법의 개발을 위해 지속해서 연구가 이루어져 교육 현장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과정으로 이어져야 한다.

조영호, 장경원 그리고 고수일(2017)은 ‘정답이 없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창의적 리더십이 교육과 세상을 바꾼다’라고 주장하며 앞으로 현재의 직업이 50% 이상 사라지고, 의술의 발달로 100세 이상으로 수명이 늘어나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갖출 역량에 대해 창의적 리더십의 핵심 가치로 창의성과 코칭을 논하였다. 그리고 창의성은 관점을 전환하는 지혜이며, 코칭은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다양한 관점을 탐색하는 과정으로 창의적 리더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강조하였다. 코칭이란, 한 개인이나 그룹이 그들이 바라는 곳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상호관계의 대화 기술이자 행위이며, 코칭은 인간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개인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개발해 주는 강력한 도구이다. 또한 코치가 목표를 정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코칭을 받는 이가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완수할 수 있도록 코치가 지지하는 과정을 포함한다(이소희, 2008; 도미향 외, 2011). 인간은 선천적으로 주도적이며 잠재력을 가진 존재로, 스스로 답을 찾는 자율성이 있으며, 내부의 답을 찾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개인의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파트너인 코치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는 코칭 철학에서 코칭의 가장 핵심적인 근간이 되고 있다(한민아·도미향, 2021). 또한 코칭은 목표 성취나 성과, 관계 증진을 위해 상호작용의 질을 높이는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박은화·이진아, 2018). 다시 말해 창의성이 발현되도록 촉진할 수 있는 코칭이 접목되어 학생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코치가 돕는다는 점에서 코칭은 창의성 계발을 위한 실질적인 교수법이 될 수 있다. 국내 마스터 코치(MCC) 폴정(2009)에 따르면, 이러한 코칭은 세계 경쟁력을 높이고 한국의 리더들이 월드클래스 리더로서 세계 속에서 탁월한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돕는 실질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실제로 코칭의 사용 영역은 다양하다. 라이프코칭, 비즈니스코칭, 커리어코칭, 교사코칭, 부부코칭, 부모코칭으로 성인의 개인 삶에서부터, 비즈니스, 아동과 부모와의 관계 영역까지 그 활용 영역은 넓다고 볼 수 있다(조성진, 2020; 한민아·도미향, 2021). 또한 가정의 양육스

트레스 완화를 위해서도 코칭이 적극 활용되고 있다(도미향·김응자·김경미, 2020; 이종임·도미향, 2021).

코칭 적용에 있어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구조화된 코칭모델을 사용한다. 이는 코칭 프로세스 또는 코칭 대화모델이라고도 언급된다. 대화모델은 한 코칭 세션 중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특정한 절차에 따라 대화를 해나가는 것으로 그 ‘특정 절차’를 칭한다(임민정, 2020). 이소희(2008)는 코칭 대화모델의 사용 여부는 코칭의 성과를 좌우할 수도 있다고 말하였다. 특히 유아와 아동의 부모와 교사, 또 아동을 위해 코칭모델을 활용한 관련 이론들과 효과 검증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도미향, 변미옥, 김병은 그리고 장자경(2013)의 놀이코칭에 대한 연구에서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코칭대화법을 적용하여 놀이코칭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그리고 박은화와 이진아(2018)의 TREASURE Talk 코칭모델을 활용한 한부모 어머니의 상호작용 연구, 박현정(2018)의 TREASURE Talk-CCTV 모델을 활용한 영유아기 교사와 부모의 학대 언어 제한과 촉진적 상호작용을 위한 연구, 이소희와 김일부(2020)의 글로벌 영리더 육성을 위한 Mind Way 코칭모델 연구, 원종순(2020)의 GOD 4N 모델을 활용한 크리스천 유아 교사·원장의 리더십코칭 프로그램 구성과 효과적용 연구, 이은미(2021)의 WISE 코칭모델에 따른 크리스천 아동의 레고놀이 코칭 연구 등이 그 효과성을 입증하고 있다.

한편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아직 유아 대상의 창의성 개발 영역에 있어서 코칭을 적용한 연구사례는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김호, 김재철 그리고 박창남(2014)의 연구에서는 유치원 교사의 수업화법과 유아의 언어능력이 유아의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하였는데, 6개 구인으로 분류되는 유치원 교사의 수업화법이 유아의 창의성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6개의 구인은 경청하기, 질문하기, 설명하기, 피드백하기, 격려와 칭찬하기, 동기유발에 관한 상호작용이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코칭에서 사용하는 코칭기술과 유사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코칭기술은 코칭을 진행할 때, 코치가 주로 사용하는 구체적인 행동 기술을 말한다(조성진, 2020). 대표적인 코칭기술은 레포 형성 기술, 경청기술, 질문기술, 피드백기술, 인정 축하 기술 등이 있다(이소희, 2008). 이와같이 창의성의 영향을 주는 상호작용과 코칭기술은 그 의미가 유사하여 유아의 창의성 교육에 의미 있는 접근이 될 수 있다. 한국코칭협회(2021)에서 제시하는 코칭철학의 가장 중요한 전제는 모든 사람이 잠재적으로 창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코칭철학을 바탕으로 유아의 창의성 개발에 필요한 부분을 코칭 시스템과 연결하여 창의성 교육 영역에도 코칭의 효과를 검증할 수 있으며, 유아의 발달을 고려한 코칭 접근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창의성 이론가들이 말하는 창의성 발달 시기에 민감한 유아들을(Gardner, 1982; 홍혜경 외, 2016; 전경원 외 2020) 대상으로 창의성 발달 요인의 특성을 문헌연구와 전문가 타당도를 거쳐 코칭모델을 직접 개발하였다. 개발된 코칭모델은 WISE-CANDY 코칭모델로 명명되며, 기존 이소희(2008)가 개발한 WISE 코칭모델을 개념모델로 하고, 창의성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새롭게 개발된 CANDY 코칭모델을 실행모델로 확장·통합한 것이다. 코칭모델 개발 연구를 통해 유아들의 창의성 교육에 코칭의 의미 있는 접근의 실천 활용도를 높이하고자 연구의 목적을 둔다.

2. 연구문제

이상에서 살펴본 목적과 필요성에 따라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WISE-CANDY 코칭모델의 구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WISE-CANDY 코칭모델의 타당도는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긍정심리학과 코칭

인간의 욕구 5 단계설을 제시한 Maslow의 이론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자기완성에의 욕구, 즉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러한 욕구는 혼자 힘으로 이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교사와 가족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물론 이러한 지지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역량에 대한 믿음이 전제되어야 한다(이소희, 2008). 코칭은 개인의 잠재된 자원과 강점을 끌어내고 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성장을 도모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코칭에 매우 적합한 이론으로 긍정심리학(Positive Psychology)이 주목받고 있다(Robert

Biswas-Diener & Ben Dean, 2007).

긍정심리학은 인간의 불안과 우울,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 감정보다 개인의 강점과 미덕 등 긍정적 심리에 초점을 맞추자는 심리학으로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심리학부 교수 Martin Seligman이 창시했으며, 인간의 긍정적인 심리적 측면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인간의 행복과 성장을 지원하는 학문 분야이다(권석만, 2008; Peterson, 2006). Seligman은 긍정적 삶을 살기 위해 다른 사람의 도움보다는 자신의 의지가 훨씬 중요하고, 나아가 행복은 누구에 의해 배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발견해가고 창조해 가는 자기화의 과정이라고 설명한다(김이삭, 2006). 또한 긍정심리학은 우리로 하여금 과거가 아닌 미래가 우리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처럼 주도적으로 미래를 창조해 갈 수 있는 동력은 자기 자신에게 있음을 강조한다(Robert, 2010). 이는 우리의 과거보다는 우리의 비전과 영감이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은 동기를 부여하고 우리를 현실적으로 미래로 이끌어가는 힘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긍정심리학에서는 우리 모두에게나 있는 흥미나 열정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며, 이를 계발하고 열정적으로 누리는 것 역시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된다고 설명한다(Peterson, 2006). 즉 긍정심리학 연구는 개인이 '무엇을 잘하는지'에 주목하고 그것을 각 상황에서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하는 유용한 지침을 제공하며 과학의 한 분야로서 개인의 변화와 성장을 설명한다. 이러한 부분은 객관성을 바탕으로 개인차, 적절한 개입 시기 등을 알려줌으로써 누구에게나 긍정적으로 효과적일 수 있으며 적용될 수 있음을 중요하게 다룬다(Diener & Dean, 2007).

긍정심리학과 코칭의 관계에서 코칭의 의미를 살펴보면, 코칭은 변화하고 성장하려는 의욕을 가진 사람이 스스로 자기 잠재력과 존재가치를 찾아 자기 전문 분야나 삶의 목표를 이루도록 돕는 인재계발시스템으로 설명되어 진다(폴정, 2009). Gary(2004)에 의하면 코칭은 '사람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비전을 키우며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돕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돕는다'라고 말한다(김응자 외, 2020, 재인용). 이와 같은 코칭은 긍정심리학에서 추구하는 인간의 변화와 성장을 추구하는 방향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는 많은 사람이 긍정심리학을 응용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코칭을 선택하며, 긍정심리학을 실천하는 수단으로 코칭을 활용한다(Diener, 2010). 1995년부터 2017년까지 발간된 국내 코칭 관련 학술지 논문을 분석한 조성진과 정이수(2018)에 따르면, 총 326편의 코칭논문 가운데 40%에 가까운 123편이 코칭의 긍정적인 효과를 검증하고 있으며, 논문 결과에서 검증된 대표적인 코칭의 효과로서 개인의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인식수준, 창의적 행동, 회복탄력성, 진로준비 및 시간관리 행동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아가 코칭은 개인뿐 아니라 집단 및 조직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코칭과 창의성 발달

최근 창의성을 다차원적인 각도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코칭과 창의성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창의성의 정의와 함께 설명되는 그 구성 요인들을 살펴보면, 창의성이란 새롭고 가치 있는 유용한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으로 개인의 인지적 능력, 정의적 특성, 환경 및 과제와 상호작용을 통하여 발달하고 결정된다는 통합적 관점이 수용되고 있다(한순미 외, 2005). 이는 창의적 사고 계발을 위해서 개인의 인지 능력뿐 아니라 정의적 성격과 환경 조성이 모두 중요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창의성에 대한 통합적 관점은 코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코칭이 창의성 계발에 필요한 상호작용을 적극적으로 추동할 수 있는 핵심적이고 구체적인 환경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코치이의 잠재능력을 이끄는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코칭이 창의성 계발과 맥락적으로 연관성이 있음을 코칭 철학에서 찾을 수 있다. 코칭의 철학은 코치이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관한 질문과 같이 인간에 대한 관점, 사고방식, 특정한 가정, 즉 인간관을 포함한다(김웅자 외, 2020).

대표적인 코칭협회, 전문코치, 코칭연구소의 코칭 철학은 공통적인 관점을 포함한다. 한국코치협회의 코칭 철학은 첫째, ‘모든 사람은 창의적이다’. 둘째, ‘모든 사람은 완전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셋째, ‘모든 사람은 누구나 내면에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한다(한국코치협회, 2021). 그리고 코칭을 정의한 일본의 에노모토 히데다케(2004) 역시 그의 저서 ‘마법의 코칭’에서 코칭의 철학은 모든 사람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으며, 모든 해답은 자신에게 있고, 그 해답을 찾기 위해 파트너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CIT코칭연구소(2021)에 제시된 3CS의 5가지 코칭철학은 첫째, ‘우리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둘째, ‘우리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셋째, ‘해답은 우리 안에 있다’. 넷째, ‘우리는 전인적인 온전한 인간이다’. 다섯째는 ‘우리는 we가 아니라 You & I입니다’이다. 이러한 코칭연구소와 전문가들이 말하는 코칭 철학이 공통으로 포함하는 관점을 보면, 첫 번째는 인간은 스스로 해결할 가능성을 강조한다. 이는 인간은 모두 창의성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장을 위해 파트너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창의성을 발휘하여 목적을 이루어 가는 과정에 ‘함께’ 지지하고

돕는 코치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코칭이 이루어지는 환경에서 코치는 코치이가 원하는 것을 편안하게 말하고 대답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코치이 스스로 사고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며 코치이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한 창의적인 사고를 촉진하기 위해 다르게 생각하기, 관점을 바꾸기, 부분과 전체 보기 등 다양한 코칭기술로 코치이의 ‘사고를 전환’하며 ‘새로움을 발견’하게 하고 결국 ‘성장’하게 만든다. 이와 같은 코칭 철학의 내용은 인간 스스로 자유로운 발상과 새로운 연결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지지해주거나, 새로운 문제해결을 위한 도전 과정에서 지적·정서적으로 도와줄 때 긍정적이고 창의적인 발상과 생각을 촉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효과적인 코칭을 위해서 코칭의 구성 요인을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이는 코치이라 할 수 있는 코칭고객(coaching client), 코치(coach) 및 코칭 시스템(coaching system)이며. 이는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서로 등등한 위치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조성진, 2008). 특히 코칭은 일반대화와 다르며, 코칭고객과 코치가 함께 이슈를 해결하려는 목적이 분명한 여정이다. 즉, 코칭은 확실한 목적이 있는 대화이다(조성진, 2020). 그리고 코칭 시스템의 핵심 요소로 코칭 대화에서 사용하는 코칭 프로세스(coaching process)가 있다. 이는 코칭대화 모델이라고도 말한다. 일반적으로 코칭 프로그램에 사용하는 코칭대화 모델은 3~6단계를 거쳐 구성되어 있다. 몇 가지 코칭대화 모델을 살펴보면, 국외에서 Kinlaw의 코칭대화 모델은 ‘직면하기-반응하기-대안 점검하기’라는 3단계 순서로 대화가 진행된다. 또한 Whitmore의 코칭대화의 GROW 모델은 ‘목표 설정하기-현실 확인-대안 찾기-실행 의지 확인’이라는 4단계 순서로 진행된다(조성진, 2009). 국내에서도 다양한 코칭대화 모델이 개발되었는데, 그중 박창규와 이소희(2008)가 공동 개발한 ANCHOR 코칭대화 모델은 6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각 단계는 ‘기대목표-현실 인식-핵심가치-경로찾기-장애요인-다짐하기’라는 순서로 진행된다. 이러한 각각의 코칭대화 모델의 공통점은 3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코칭은 고객과 해결하려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이며, 그다음은 목표에 맞는 대안을 찾는 것이 두 번째 단계이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점검 및 의지 다짐하기 단계이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코칭대화 모델이 일반 대화와 구분될 수 있는 지점이다. 이러한 코칭대화 모델은 다양한 영역에서의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코칭의 효과성이 검증되고 있으며, 그 활용 영역은 성인의 개인 삶에서부터, 비즈니스, 아동과 부모와의 관계 영역에 이르기까지 넓다고 볼 수 있다.

김경일(2020)은 창의성은 누구에게나 잠재되어 있으며 다만 꺼내지 않았을 뿐이라고 강조하는데 그에 따르면, 누구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으며 상황이 그 역량

을 발휘할 수 있게 이끌 수 있다고 설명한다. 즉 창의적 발상의 근원이 무엇을 끄집어낼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끄집어낼 것인가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문용린, 2007). 이러한 논의들은 창의성은 발현·발달 될 수 있으며, 코칭대화 모델을 활용한 코칭과 같은 구체적인 실행과정을 통해 유아의 창의성을 증진할 수 있는 환경과 맥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모든 발달적 자극을 수용하는 시기인 유아들의 일상적인 활동 속에서 창의적 사고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러한 창의적 생각을 발휘할 수 있도록 끌어내는 코칭은 유아에게 창의적으로 성장하도록 함께 돕는 중요한 역할로 기여할 수 있다.

유아들의 창의성 향상을 위해 발달 시기를 살펴볼 수 있다. Gardner(1982)는 5세에서 7세에 이르는 전조작기 유아들은 그 이전의 유아나 그 이후의 아동들에 비해 풍부한 상상력과 창의력 및 예술적 민감성을 지니고 있다고 했다. 또한 Erikson(1950)은 만 3~6세 시기를 ‘나는 할 수 있다’라는 태도로 주도성이 발달하는 시기이며, ‘창조와 시도(making and making like)’라는 특징을 가진다고 보았다. 유아들의 창의적인 행동은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고 발휘되는데 물활론적 사고나 상상놀이, 역할놀이, 그리기, 만들기, 신체표현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특히 Gardner가 강조하는 것은 적어도 유아기는 약 7세 정도까지 비교적 구조화되지 않은 창의적 지향에 시간을 보내며,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자신의 힘으로 자료에 접하고 어떻게 자신의 능력을 가장 잘 발휘할 것인가를 발견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다(전경희, 2007). 유아기는 다른 연령에 비해 상상력이나 창의성이 집중적으로 발달하는 시기로 그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유아기의 창의성은 자유로운 상상력이 논리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세하다. 둘째, 상상력에 근거한 유아의 경험들은 훗날 창의적 문제해결 과정에서 통찰과 전망을 준다. 셋째, 유아기의 상징적 활동인 혼잣말이나 상상놀이 등은 예술가들이 보이는 창의적 특성의 근원이 된다(최인수, 2011). 따라서 유아기에 다양한 활동과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능력과 흥미를 발견하고 그와 관련하여 긍정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다.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도 유아의 자율성과 창의적인 역량을 강조하며 전 발달 영역에 전인 발달을 이루도록 강조하고 있다. 교사와 부모는 코치로서 유아들에게 호기심에 대한 적절한 지도, 다양한 활동에 대한 상호작용과 격려를 하며, 유아들의 창의적 활동과 사고에 도움을 주고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창의적 유아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의 연구문제 1에 해당하는 ‘WISE-CANDY 코칭모델의 구성은 어떠한가?’에 대한 코칭모델의 구성과 체계화 구조를 하기 위해 코칭과 창의성 개발의 유기적 관계를 연결하는 선행논문, 도서, 미디어 자료를 고찰하여 관련된 문헌적 자료를 수집하고, 내용을 분석하여 모델을 개발하였다.

연구문제 2에 해당하는 개발된 ‘WISE-CANDY 코칭모델’의 타당성을 확인하고자 유아교육 현장에서 교육하는 아동학 박사와 창의교육센터 원장, 전문 인증 코치 자격(KAC, KPC)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에게 피드백을 받았다. 피드백 내용은 이메일을 통한 연구자료를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의견을 받고 수정 보완하여 2차까지 진행한 후 기술적 통계의 정량적 분석을 하였다.

IV. WISE-CANDY 코칭모델의 구성과 체계화

‘WISE-CANDY 코칭모델’은 유아의 창의성 향상을 위한 코칭의 목적에 맞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먼저 WISE 코칭모델은 이소희(2008)가 기존에 개발한 모델이다. 이 모델은 유아의 창의성 향상을 위해서 코칭 적용 개념모델로서 코칭의 목적과 방향을 잡아주는 시작 단계와 가장 마지막에 다시 도전과 적용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역할을 한다.

두 번째로 CANDY 모델은 코칭의 중간 과정에 창의성 향상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코칭과 연결하여 적용할 수 있는 실행모델이다. 이는 유아가 문제해결을 위한 목표 설정을 시작하고 다음으로 구체적인 창의적 사고의 과정으로 깊이 있게 나아가도록 이끄는 실질적인 코칭 과정이 된다. 결과적으로 WISE-CANDY 코칭모델은 개념모델과 실행모델이 유기적으로 확장·통합된 코칭 시스템으로 개발되었다.

개념모델과 실행모델을 각각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WISE 개념모델의 구성

WISE 코칭모델은 W-I-S-E의 각 이니셜에 코칭의 단계적 대화 적용이 아래 <표 1>같이 구성되어져 있다.

<표 1> WISE 코칭모델

단계	WISE	의미	적용내용
1	W	What do you want?	코치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목표를 확인하는 단계
2	I	Is it possible?	코치이가 원하는 것을 달성하도록 방법을 모색하는 단계
3	S	Shall we try?	코치이가 모색한 방법을 시도해 보도록 지지하는 단계
4	E	Enough of it!	피드백을 통해 마무리하는 단계

출처: 이소희(2008). 멋진응원, 코칭.

W단계(What do you want?)는 코치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목표를 확인하는 단계이다. 즉, 코치는 코치 받는 코치이인 유아가 창의적 문제해결의 상황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작의 의지와 목표를 설정하도록 돕는다. 다음으로 I단계(Is it possible?)는 코치이가 원하는 것을 달성하도록 방법을 모색하는 것으로 유아 스스로가 도전의 가능성으로 나아가는 개방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단계로 볼 수 있다. W와 I가 목표 설정과 가능성의 모색이라는 측면에서 코칭의 전체적인 방향을 잡는 코칭의 개념모델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세 번째 S단계(Shall we try?)는 구체적으로 유아가 모색한 방법을 시도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지지하는 단계이다. 이 부분이 다음에서 언급할 CANDY 실행모델이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단계이다.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하는 E단계(Enough of it!) 피드백을 통해 시도한 방법을 다시 점검하며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이다.

이러한 WISE 모델의 특징은 첫째, 코치이가 원하는 목표를 분명하게 인식하도록 돕는 질문형 모델이며, 둘째, 코치이의 가능성과 주도성을 여는 열린 질문을 사용하고 있다. 셋째, 체감할 수 있는 코칭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넷째, 목표 성취에 대한 충족감을 확인하고 피드백 질문을 포함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 모델은 특정한 프로그램에서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코칭 적 접근을 할 때,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과 변형을 할 수 있는 코칭대화 모델로서 코치의 질문을 통해 코치이가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이소희, 2008; 박시내, 2010).

2. CANDY 실행모델의 구성

WISE 개념모델과 연계된 CANDY 모델은 코치 받는 유아를 고려하여 CANDY(사탕)모델로 명명하였으며 이는 코칭 대상을 인식할 수 있도록 특징적인 이름을 선택하였다. CANDY 모델은 WISE 모델의 세 번째 단계인 ‘S단계(Shall we try?)’인 코치이가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는 단계에서 구체적인 방법과 과정으로 확장한 실행모델이다. CANDY 모델은 코칭 단계에서 유아의 창의적 사고 과정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로 구성되었다. 즉, 코치는 유아가 혼자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유아의 사고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지하고 이끌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특히 유아를 대상으로 창의성 향상에 목표를 두고, 유아에게 실제로 필요한 코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코칭 목표에 기반하여 구체성과 체계성을 가지고 진행될 때 더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이소희, 2008; 박창남, 2014). 이러한 측면에서 CANDY 모델은 실제로 교사나 부모 모두 코치로서 쉽게 접근·적용할 가능성과 그 효과를 향상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유아에게 창의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관련 요소들이 실질적으로 코칭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모델로 구성하였다. 창의성의 주요 특성들을 코칭기술로 적용할 수 있도록 코칭환경과 연결하여 유아의 창의적 사고 과정과 맥락에서 도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코칭 개념모델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코칭 실행모델이 실천적인 역할을 실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

학자들은 창의성이 하나의 특성으로 설명될 수 없으며, 창의성은 인간의 다양한 측면과 연관되어 설명된다고 말한다(박병기, 1998). 즉, 단편적인 접근으로는 창의성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고 보고, 창의성과 관련된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창의성의 다양한 변인을 전체로서 이해하려는 통합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코칭 대상인 유아의 창의적 사고를 향상하기 위해 코칭의 구체적인 실행력을 높이고자 창의성 특성 영역에서 대표적인 인지적, 정의적(성격), 환경적 요소의 측면(한순미 외, 2005; 홍혜경 외, 2016)의 하위 요소를 아래 <표 2>와 같이 살펴보았다.

<표 2> 창의성 특성 영역과 하위 요소

창의성 특성 영역		의미	하위요소
1	창의성의 인지적 측면	창의적 사고에 영향을 주는 지능, 지식, 아이디어 생산, 문제해결력을 의미한다.	사고 확장에 영향을 주는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 상상력 등
2	창의성의 정의적(성격) 측면	창의성을 발현하는 개인의 성격과 동기에게 영향을 주는 자기수용과 잠재력을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집중력, 호기심, 개방성, 인내, 독립성, 모험심, 끈기, 용기, 자발성 등
3	창의성의 환경적 측면	가정, 사회, 문화를 통해 자신의 창의성이 평가, 격려, 훈련으로 상호작용 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가정환경과 주변 환경에서 만나는 부모와 교사의 교육적 분위기, 격려하는 분위기

CANDY 모델은 창의성의 인지적, 정의적 요소를 반영하여 모델 구성을 하였으며 창의적 환경적 측면은 코치인 부모와 교사가 그 역할을 한다. CANDY 모델의 영어 첫 단어 C-A-N-D-Y 각 이니셜에 따라 아래 <표 3>같이 구조화하였다.

<표 3> CANDY 코칭모델

단계	CANDY	의미	창의성 특성 영역	적용내용
1	C	Curiosity (호기심으로 탐색하기)	창의성의 정의적(성격) 영역	코치이가 호기심을 가지고 탐색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
2	A	Ask (질문하기)	창의성의 인지적 영역	코치이가 원하는 목표를 찾을 수 있도록 질문으로 생각을 여는 단계
3	N	New way (새로운 방법)	창의성의 인지적 영역	코치이가 새로운 창의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확장하게 하는 단계
4	D	Delight (기쁨으로 칭찬하기)	창의성의 정의적(성격), 환경적 영역	코치이가 스스로 해결한 것에 만족감과 기쁨, 성취감을 느끼는 단계
5	Y	You did it! (네가 해냈어!)	창의성의 정의적(성격), 환경적 영역	코치이가 스스로 해낸 것을 언어를 통해 지지받고, 스스로 할 수 있다는 동기와 다음 행동에 기대하는 마음을 갖는 단계

1) C=Curiosity: 호기심으로 탐색하기

창의성 계발을 위한 첫 번째 CANDY 모델의 시작은 ‘호기심(Curiosity)’이다. 창의적 특성 영역 중 정의적 영역에 해당한다.

즉, 코치이가 호기심을 가지고 탐색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이다. 호기심은 새롭고 신기한 것을 좋아하거나 모르는 것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정의된다(하부르타수업연구회, 2015). 즉 호기심은 어떤 것의 존재나 이유에 대해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 하며, 주변 사물에 대해 의문을 갖고 끊임없이 질문을 제기하는 성향이나 태도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창의적인 사람들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을 이해하고 싶은 강한 호기심을 갖는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창의적 인물은 천재성이 아닌 호기심이 만들어내는 것이다(Nisbett, 2005)라고 표현한다. 이런 호기심은 폭넓은 관심과 특별한 취미를 갖게 하고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게 만들고 이러한 과정에서 더 깊고 넓은 생각에 몰입하도록 이끈다. ‘창의성의 즐거움’의 저자 Csikszentmihalyi(1996)는 창의적인 삶을 향한 첫 번째 단계로 호기심과 관심의 계발이 중요하다고 말하였다. 그에 따르면 어린이들 뿐 아니라 아흔 살이 된 노인에게도 호기심은 여전히 낮설고 미지의 것에서 느끼는 신선한 즐거움을 줄 수 있는데, 이러한 호기심의 배양을 위해 매일 무언가에 놀라움을 느껴보고 대상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면서 고정관념이 개입하지 않도록 연습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창의성으로 이어지게 하는 호기심이나 관심은 그 계기나 경험 나아가 반복적 경험으로 커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호기심은 창의성에 있어서 정서적 성격에 해당한다. 창의적 성격이 중요한 이유는 창의성이 발현되는 데 있어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해보려는 성향·성격이 창의적 사고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래 <표 4>와 같이 많은 학자가 창의적 성격 구성의 요소로 호기심을 공통으로 언급하고 되고 있다(이신동 외, 2015; 전경원, 2009).

<표 4> 학자들의 창의적 성격 구성요소

이론가	창의적 성격의 구성요소
전경원(2009)	호기심, 개방성, 독립성, 집중력, 모험심, 유머
김종안(1998)	인내, 호기심, 개방성, 유머, 독립성, 비 순응성
하주현(1999)	호기심, 상상력, 유머, 집착, 자기확신
Torrance(1972)	모험심, 호기심, 강한 감동, 이타적, 독립적인 판단, 끈기 등
Daniels(1998)	호기심, 독립적, 상상력, 개방적, 위험 감내, 유머, 정렬
Davis(1999)	개방적, 위험 감수, 호기심, 유머, 독립적, 인내, 높은 에너지
Gelade(2002)	외향성, 민감성, 호기심, 개방성, 비 동조성

송인섭 외(2001)는 ‘창의적 성격은 창의적 태도 및 창의적 의식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고 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성격을 가르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았다. 하지만 교사들이 창의적 사고와 관련 있는 특성이나 행동, 즉 자신감, 독립심, 열정, 모험심, 호기심, 놀이, 유머 감각, 사고를 위한 고독, 복잡성에 대한 흥미, 지각, 예술적 관심 등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창의적 태도 및 창의적 의식은 창의성을 계발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의 열정과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어른들은 아이들을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끈기 있게 기다려야 함을 강조한다(Holt, 1983). 즉 아이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그들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어른들 또한 기대와 호기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아이들의 호기심, 상상력, 창의성은 근육과 같아서 사용하지 않으면 잃어버리게 될 수 있다(Michele Root-Bernstein, 2014)고 말한다. 이러한 점에서 자녀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코칭을 통해 현실적으로 중요한 시작점을 제공할 수 있고, 나아가 아이가 일상에서 지속해서 상상하고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으로 이끌 수 있다. 부모코칭의 첫 스텝은 부모가 자기 생각과 판단으로 아이를 묶어 놓지 않고 아이가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 부모 또한 호기심을 가지고 아이가 새로운 것을 즐길 수 있도록 지지하는 것을 강조한다(정진우·우수명, 2007). 다시 말해, 코칭에서는 코치, 코치이 모두 호기심을 갖는 것이 창의적 사고를 향한 ‘관심 두기’로 도입하며, 이는 코칭 프로세스를 통해 창의적인 사고 과정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출발점을 제공할 수 있다.

2) A=Ask: 질문하기

두 번째, 코칭모델은 ‘질문하기(Ask)’이다. 코치이가 창의적 문제해결을 위해 원하는 목표를 찾을 수 있도록 질문으로 생각을 여는 단계이다. CANDY 코칭모델의 첫 번째 단계인 호기심을 풍부하게 가지고 다음으로 질문하기의 탐구하는 행동은 창의적 상황에서 문제를 적극적으로 바라보는 발단이 되는 것이다. 즉 내적인 호기심이 밖으로 나올 때는 질문의 형태로 시작이 될 수 있다.

질문은 코칭의 꽃이라고 표현할 만큼 매우 강력하고 창의성 계발에도 다양한 질문은 생각을 여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Berger(2014)는 디자이너와 발명가, 엔지니어 등 혁신과 창의성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지닌 사람들이 문제와 도전에 접근하는 방식을 살펴본 결과,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문제해결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들의 성공에는 마법 같은 일관된 공식이 없었다. 다만 위대한 변화 제조기들의 공통분모는 바로 그들이 질문을 뛰어나게 잘한다는 사실을 통해 질문의 기술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즉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있어 ‘좋은 질문’은 생각을 확장하고 그 깊이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코칭기술의 핵심이 될 수 있다. 질문은 질문을 받은 사람들이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다. 즉 질문은 생각을 결정하고 생각은 마음을 결정하며 마음은 행동을 결정하는(하부르타수업연구회, 2015) 강력한 인지 시스템이다. 이러한 질문이 곧 생각의 방향을 추동하며 창의성을 발휘하게 하고 나아가 창의적인 사고가 창의적인 행위로까지 이어진다는 점에서 질문의 힘(power)은 연쇄적인 결과로 이끌어 갈 수 있다.

코칭에서 질문하기는 코칭 과정에 하나의 핵심 기술로 다양한 문제 제기와 함께 사고로의 확장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 이소희(2008)는 질문은 코칭의 시작과 끝이자 끝과 시작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좋은 질문 기술로 열린 질문, 긍정적 질문, 미래 질문, 발견 질문, 일회성 질문 보다는 반복적인 질문을 언급하였다. 질문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올 수 있다. 창의성을 잘 발휘하기 위한 인지적 요소에는 크게 사고의 확장과 사고의 수렴이 있다. 사고의 확장은 확산적인 사고로 상상력, 은유, 유추적 사고와 연결되어 가능한 한 많은 양의 아이디어 산출하기, 다양한 해결책을 찾아내기, 변화시키기, 다양하게 표현하기 등의 활동이 있다. 사고의 수렴은 논리 분석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와 연결되어 문제의 전후 과정 분석하기, 해결할 상황에 대해 속성이나 요소로 분석하기 등이 있다(홍혜경, 2016). 이러한 사고의 확장과 사고의 수렴은 유창성, 융통성, 정교성, 독창성, 상상력의 사고로의 질문으로 표현되어 창의적 사고를 발현할 수 있게 한다(전경원, 2009). 코칭에서 코치는 다양한 질문으로 코

치이가 스스로 생각을 확장하고 구체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도울 수 있다.

3) N=New way: 새로운 방법

세 번째는 ‘New Way(새로운 방법)’이다. 코치이가 이전까지 생각해왔던 것과 다른 새로운 창의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술을 접목하는 단계이다. ‘생각의 탄생’ 저자 Bernstein, Scott 그리고 Michele(1999)은 ‘무엇’을 생각하는가 보다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중요하게 언급하였다. 질문을 통해 유아들의 생각을 확장할 수 있으나, 때로는 자신이 늘 보던 시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도 있다. 따라서 교사나 부모는 새로운 접근으로 유아들의 생각 관점을 바꿔주는 코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일본 창조학회의 이사를 역임한 Makoto Takahashi(2002)는 창의력을 향상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창조기법 즉 창의성 기법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창의적인 사고의 의욕을 높이는 기법’이다. Cropley(2001)도 창의성 기법을 창의성을 신장시키는 아이디어를 얻기 위한 구체적인 기술로 설명하였다.

CANDY 코칭모델의 두 번째 단계인 ‘질문하기(Ask)’에서 질문을 위한 사고에서 사고의 확산과 사고의 수렴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사고를 촉진하는 방법으로 창의성 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 확산적 사고 기법으로는 대표적으로 브레인스토밍, 스캠퍼, 속성열거법, 강제연결법, 육색사고모, 마인드 맵 등이 있으며, 수렴적 사고 기법으로는 역브레인스토밍, 하이라이팅, 쌍비교분석법 등이 있다(Cropley, 2001; 전경원, 2009). 실제 유아를 대상으로 창의성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창의성 기법의 활용은 꾸준히 연구되어오고 있다. 박인영(2018)은 창의성 기법을 활용한 유아의 사회적 창의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연구를 진행했으며, 창의성의 하위 요소인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상상력에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고, 유아의 사회성 기술에도 정서표현, 질서의식, 자신감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창의성 기법의 활용은 창의적 사고와 사회정서 부분에도 유아들이 새로운 생각과 긍정적인 마음을 갖도록 하는 데 영향을 주고 있다. 다양한 창의성 기법을 활용하여 새롭고 독창적인 관점으로 창의적인 사고를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코칭을 통해 창의적 산출물을 내도록 이끌 수 있다.

4) D=Delight 기쁨으로 칭찬하기

네 번째는 ‘Delight(기쁨으로 칭찬하기)’이다. 코치이가 원하는 것을 해결한 것에 코치는 기쁨으로 칭찬과 축하를 하면서 코치와 코치이가 즐거운 긍정 정서를 표현하고 느끼는 감정 나눔의 단계이다. 코칭에서 코치는 코치이가 해결한 것, 또한 코칭 과정에서 느끼는 모든 것에 진실한 기쁨을 가지고 격려와 칭찬하는 것은 코칭기술에서 중요한 한 부분이다. 이를 코칭에서는 인정 축하 기술로 언급한다. 인정과 축하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태도는 그 속에 진실과 진심을 담아야 한다(이소희, 2008). 코치가 코치이에게 긍정적 감정의 기쁨을 가지고 진심으로 격려와 칭찬을 할 때 코치이 또한 코치의 감정을 전달받아 ‘같이’ 긍정적 정서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거울뉴런 시스템(mirror neuron system, MNS)이 작동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실제로 뇌 과학자들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의도적인 움직임을 보면 마음속에 그에 대한 모형이 형성되는데 이러한 거울뉴런 시스템으로 우리가 이에 대해 즉시 호응할 수 있는 모방 행동을 준비되도록 한다는 것이다(김영훈, 2018). 거울뉴런 시스템으로 뇌가 타인의 움직임을 모방하여 느끼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는 긍정심리학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는데, 긍정적 감정이 주는 좋은 점을 연구한 Fredrickson(1998)은 긍정 정서의 고차원 감정이 안전함을 알려주며, 후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심리학적 기술을 습득하고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Peterson, 2006, 재인용).

칭찬과 격려로 유아는 무엇이 가치 있는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도 보다 나은 방향이 무엇인지 알아간다(이성진, 2001). 또한 자신의 강점을 알게 되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건강한 자아상을 갖도록 만든다(이지영, 고진영, 김정철, 2021). 물론 과도한 칭찬이 아닌, 결과보다 과정에서 나타난 태도와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야 한다. 결국, 코치이인 유아는 코치의 격려와 칭찬으로 기분 좋은 감정을 느끼게 되고, 결국 자신의 태도, 결과들에 만족감, 성취감, 그리고 자존감을 느끼게 될 것이며 자신의 강점과 약점도 구분하게 된다는 점에서 코칭을 통한 경험의 과정은 유아가 전인적 인간으로서의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촉진한다.

창의적 업적을 낸 사람들에게 있어 개인적 배경 중의 하나인 가정환경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호기심을 격려하는 분위기, 부모의 교육적 분위기, 창의적 산물을 가치 있다고 인정하는 것, 창의적 사고 훈련 및 평가 등이 그들의 창의성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한순미 외, 2005). 즉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해 내는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 창의적이고 가치 있음을 인정받을 때 또 다른 새로운 문제나 과제에 도전할 수 있는 자신감과 용기를 얻게 된다.

Facchin(2002)에 따르면, 영재의 잠재된 능력은 오로지 자신의 인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해하며 주위에서 인정받을 때만 하나의 힘으로서 인성 전반에 통합될 수 있다고 설명함으로써 아이의 성장과 발전에 있어서 자신과 타인의 인정과 격려 모두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는 영재 아동뿐 아니라 모든 유아와 아동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유아가 자기 행동이 어떠한 상황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는 경험은 다음 행동에 대한 의욕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되고, 더욱더 새로운 환경에 도전하게 하는 동기유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교사나 부모는 아이들을 존중하며 인정 축하 기술로 코칭의 클라이맥스를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칭찬을 통한 ‘인정과 축하’는 반드시 의미 있게 진행되어야 할 부분이다.

5) Y=You did it 네가 해냈어!

CANDY 모델의 마지막은 ‘You did it(네가 해냈어!)’이다. 이 단계는 코치이가 주도성을 가지고 해낸 것을 언어로 적극적으로 표현해 줌으로써 다음 도전을 또 가능하게 하는 또 다른 행동의 동기를 만들어주는 단계이다. 즉, 이것은 앞에 네 번째 ‘Delight 기쁨으로 칭찬하기’ 단계의 연장선으로 앞서 자신의 성공 경험으로 칭찬과 격려로 코치이가 느낀 긍정적 감정에 지속해서 또 할 수 있다는 스스로 기대하게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다. 일본의 심리 치료사이며 자녀교육 전문가로 활동하는 Ichiro Hoshi(2006)는 ‘아는 만큼 말하는 만큼 아이가 달라지는 부모의 말’ 30가지 대화 법칙에서 아이가 스스로 성장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스스로 해낸 결과에 대해 인정받은 아이는 성공 경험을 느끼고 궁극적으로 더 가치있는 성공으로 나아가려는 동기에 긍정적인 자극을 받게 된다(Tracy, 1993). 이러한 자극은 자기효능감(self-efficacy)과 긍정적인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기효능감이란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자신이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기 능력에 대한 신념으로 정의되며, 주어진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 개인이 갖고 있는 인지적 자원이나 동기 혹은 다양한 행동 과정을 동원할 수 있다는 자기 능력에 관한 판단 및 신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Bandura, 1977 & Schunk, 1981). 또한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어떤 행동을 수행할 때 어려움에 부딪히거나 노력해야 할 상황에 직면할 때, 그것을 결정하거나 해결하는 강력한 요인이 된다(신인덕, 2020). 이처럼 자기효능감은 새로운 행동의 동기와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이 가진 판단 능력으로 볼 수 있다. 유경훈(2013)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창의적 사고능력이 자기효능감과 자기결정성 동기의 요인들과의 관계성을 연구한 결과 유의한

정적상관이 나타났다고 보고 하였다. 또한 Sternberg(2003)은 창의성 발달 연구에서 아동의 성공을 예측하는 가장 좋은 변인은 아동의 능력보다는 아동이 스스로 갖는 성공에 대한 믿음이라 할 수 있는 자기효능감이 중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긍정적 자아개념 또한 유아의 창의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경화와 고진영(2003)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는 판단 능력의 자아개념은 인간의 평생동안 행동에 지속해서 영향을 미치며 유아기는 자아개념 형성에 있어 기초적이며 결정적인 시기로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한다. 이러한 긍정적인 자아개념은 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판단하여 갖게 되는 행복 또는 기대 등의 개념으로 자아발달을 돕고 창의성 발달에도 중요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정소윤, 2008).

즉 코치는 코치이를 격려하고 응원하며 유아에게 “네가 해냈구나”를 말로 표현함으로써 유아가 긍정성의 믿음과 기대로 궁극적으로 또 다른 성취를 위해 두려움이 아닌 ‘새로운 도전’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한국코치협회(2021)에서 제시한 코칭 철학에서 ‘모든 사람은 누구나 내면에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한다. 이와 같이 Y단계에서는 코칭 철학에서 내포하는 의미들을 코치이가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이러한 코칭 시스템은 유아가 창의적인 사람으로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스스로 지속하고 도전하는 선순환’을 만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확장시킨다는 점에서, 궁극적인 코칭 목표에 이르게 한다.

3. WISE-CANDY 코칭모델의 철학과 목표, 환경

유아를 대상으로 코칭이 진행되는 WISE-CANDY 코칭모델의 핵심 가치과 목표는 ‘창의적 유아, 도전하는 유아’이다. 모델의 코칭철학은 4가지이다. 첫째, 유아는 무한한 창의적 잠재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둘째, 유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셋째, 유아 스스로 도전하려는 힘을 가지고 있다. 넷째, 유아는 존중받으며 더 성장할 수 있다. 4가지 코칭철학을 기반으로 유아는 코칭을 받으며 잠재된 무한한 가능성을 더 발휘할 수 있게 도움을 받으며 창의적 유아, 도전하는 유아로 성장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지속해서 새롭고 다양한 도전을 하는 유아로 긍정의 힘을 가지게 될 것이다. WISE-CANDY 코칭모델의 구조와 환경은 코칭의 목표 설정의 WISE 개념모델과 창의성 발휘의 구체적인 방법적 접근의 CANDY 실행모델을 확장·통합하여 [그림 1]과 같이 구성된다.



[그림 1] WISE-CANDY 코칭모델의 구조와 환경

V. WISE-CANDY 코칭모델의 타당도 확인

1. 타당도 검토 대상자 선정 배경

WISE-CANDY 코칭모델의 구성과 체계화 타당도 검토를 위해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유아교육 기관 종사자와 코칭 전문가로서의 자격에 관한 두 가지를 고려하여 6명을 고려하였다.

<표 5> WISE-CANDY 코칭모델의 타당도 검토를 위한 전문가 구성

유아교육기관 근무경력 기간 및 직위	코칭 자격	학위	인원
어린이집, 유치원 현장 15~18년 원장	KAC	아동학 박사	2
유치원 현장 20년 원장, 창의센터 운영 원장 10년	KAC	아동학 박사	1
창의센터 운영 7년 원장	KPC	아동학 박사	1
어린이집 현장 운영 15~18년 원장	KPC	아동학 박사	2

2. 타당도 검토 방법

1) 모델 구성 관련 자료를 전문가 6명에게 1차 이메일을 통해 전달하고 4점 리커트 척도와 추가 전문가 의견을 받으며 검토 질문의 답변을 받았다. 1차 진행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수정 보완된 내용으로 다시 2차 검토 피드백을 받았다.

2) 모델 구성 관련 자료를 핵심이 되는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타당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표 6>과 같이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질문지 평가 점수는 ‘4점=아주 적합하다, 3점=적합하다, 2점=적합하지 않다, 1점=아주 적합하지 않다’라는 의견으로 피드백을 받아 확인하였다.

<표 6> WISE-CANDY 코칭모델의 타당도 검토 결과

내용 제목	소제목	검토에서의 주안점	평가 4점 척도
서론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시의성	3.6
	연구문제	연구의 가능성	3.7
	코칭과 창의성의 연결성	연구목적의 반영	3.5
본론	모델구성과 명칭	내용인지	3.6
	WISE 개념모델과 CANDY 실행모델의 구성	두 세부 모델로의 구분의 연결성	3.5
	실행모델의 구성 ‘C’ 이론 구성	구성 내용의 타당성	3.6
	실행모델의 구성 ‘A’ 이론 구성	구성 내용의 타당성	3.5
	실행모델의 구성 ‘N’ 이론 구성	구성 내용의 타당성	3.4
	실행모델의 구성 ‘D’ 이론 구성	구성 내용의 타당성	3.4
	실행모델의 구성 ‘Y’ 이론 구성	구성 내용의 타당성	3.3

질문지와 추가 의견을 반영하여 타당도의 검토를 정량적으로 분석한 결과, 4점 기준 평점 3.51로 나타나 전체적인 개발 모델의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타당도 검증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은 실행모델의 ‘N’, ‘D’, ‘Y’ 단계였다. 수정 전 ‘N’을 설명하는 New way의 ‘새로운 방법’의 이론적 접근을 좀 더 유아에게 적용 가능한 방법을 실제 창의성 교육에서 찾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다양한 관점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확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에 영향을 주는 창의성 기법 적용으로 접근하도록 수정하였다. 그리고 ‘D’를 설명하는 Delight의 ‘기쁨으로 칭찬하기’와 ‘Y’를 설명하는 You did it의 ‘네가 해냈어!’의 두 부

분이 창의성의 정의적인 성격 부분으로 중복되는 의미를 구분할 수 있는 이론설명이 필요하다. 이는 의견에 코치이 입장에서 다시 고려하여, Delight의 ‘기쁨으로 칭찬하기’ 부분에서는 코치이의 감정에 집중하여 긍정 정서를 느끼는 이론을 다시 검토하고 뇌 발달 접근과 긍정심리학 접근으로 이론을 설명하였다. ‘Y’를 설명하는 You did it의 ‘네가 해냈어!’ 부분 또한 긍정 정서의 연장선으로 설명하되 유아의 다음 도전을 가능케 하고 지속할 수 있는 동기와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아개념과 자기효능감과의 연관성을 통해 이론적으로 모델의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 수정·반영하였다.

VI.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두 가지 연구 문제를 설정하고 유아의 창의성 향상을 위한 WISE-CANDY 코칭모델 개발과 체계화에 대한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구성된 코칭모델에 대해 전문가 6인에게 검토 확인하여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에 이론적, 방법론적, 실천론적 차원에서 논의한 다음, 제언과 함께 연구의 의의를 제시한다.

첫째, 이론적 측면에서는 본 연구를 통해 긍정심리학과 코칭 이론 및 창의성 관련 선행이론에 기반하여 WISE-CANDY 모델을 개발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긍정심리학의 학문적 방향, 코칭의 철학에서 사람의 성장 욕구를 긍정으로 지지하고 이끌어 줄 수 있다는 선행이론과 같은 맥락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코칭의 학문적 체계를 위해 이론적 배경으로 긍정심리학은 코칭 철학의 설명력을 높이며, 코칭의 교육적 효과를 지지하는 배경 이론으로 활용되고 있다(이소희·박은화, 2016; 김수영·도미향, 2017; 박은화·이진아, 2018; 이소희, 2019; 임현주, 2020). 코칭철학은 공통으로 인간은 ‘스스로 무한한 잠재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문제를 해결하고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돕는 파트너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즉 인간은 창의적 존재이며 스스로 생각하며 창조할 수 있다는 관점의 이론(Csikszentmihalyi, 1996)과 방향을 같이 하며, 창의적인 인간과 그를 둘러싼 환경이 인간을 더 성장할 수 있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고 창의성 계발을 위한 교사의 역할, 부모의 역할로 코치가 필요함을 이론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한순미 외, 2005; 전경원 외, 2020). 학자마다 창의성은 하나의 특성으로 설명될 수 없음을 설명한다. 박병기(1998)는 단편적인

접근으로는 창의성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고 보고, 창의성과 관련된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창의성의 다양한 특성을 전체로서 이해하려는 통합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창의성의 주요 특성 영역은 대표적으로 인지적, 정의적(성격), 환경적 요소의 3가지 측면에서 함께 상호작용하며 발휘될 수 있다고 말한다(한순미 외, 2005; 홍혜경 외, 2016). 코칭에서 사용되는 코칭기술은 통합적 창의성의 3가지 측면을 지지할 수 있다. 코칭 과정에서 격려하기, 질문하기, 인정 축하하기, 공감하기 등은 코칭의 대표적인 기술로 코치이가 원하는 목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코치인 파트너가 함께 지지하는 역할에 사용되는 것이다. 이는 곧 코칭의 환경이 되며 코치이가 스스로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매개체 역할로 중요한 코칭의 핵심 기술 부분임을 시사한다.

둘째, 방법적 측면에서 WISE-CANDY 코칭모델의 창의성 개발에 필요한 방법적 접근을 살펴볼 수 있다. 코치이가 원하는 문제해결의 목표를 두고 창의적 발휘에 있어 필요한 선행 이론을 연구하고 이에 맞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모델을 제시하였다. 모델은 창의성 발휘에서 필요한 목표, 창의적 사고를 돕는 호기심, 다양한 질문, 새로운 방법 찾기, 칭찬과 격려, 스스로 해결한 것을 인정함으로써 주도성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코칭의 각 단계가 구성돼 있다. 먼저 WISE 개념모델이 코칭의 큰 목적으로서 원하는 것의 문제를 해결하는 목표 설정 단계이고 세부적인 실행모델로서 CANDY 코칭모델을 제시하였고, 구조적 체계화를 위해 각 코칭 단계와 코칭환경을 그림으로 나타내었다. 전문가 타당도를 거쳐 적합도를 확인하였지만, 모델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적용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본 연구는 창의성 교육에 적용 가능한 코칭의 이론적 연구의 의미를 지니며 모델 효과성에 관한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연구의 제한점이 있다.

셋째, 실천적 측면에서 WISE-CANDY 코칭모델의 실용성과 가치이다. 창의성 교육에 도움이 되는 많은 연구와 방법이 제시되고 있으나, 유아의 창의성 촉진을 위한 실행모델에 관한 연구가 많지 않다. 한편 많은 선행 연구에서 코칭 적용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구조화된 코칭모델을 사용하고 있다. 모델은 한 코칭 세션 중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특정한 절차(순서나 단계)에 따라 대화를 해나가는 것으로 그 ‘특정 절차’를 칭한다(임민정, 2020). 코칭 모델의 사용 여부는 코칭의 성패를 좌우할 수도 있다(이소희, 2008)며, 모델을 활용하여 효과성을 본 이론들이 지속해서 연구되고 있다(박은화·이진아, 2018; 김일부·이소희, 2020; 임민정, 2020; 임현주, 2020; 이은미, 2021).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의 코칭모델은 학생들에게 직접 실행하고 적용하여 실천적 지도에 효과인 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적용함으로써 코치들에게 활용도를 높이하고자 하였다. 유아들을 대상으로 창의성 향상에 목표를 두고 코칭의 개념모델과 실행모델을 제시함으로써 교육적이며 코칭 적용의 실천적 가능성을 확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본 연구 수행에서 나타난 제한점과 함께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WISE-CANDY 코칭모델은 전문가들을 통해 확인하였으나, 모델을 적용한 실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모델에 근간한 프로그램 적용 연구가 이루어져 할 것이다. 둘째, 실제 코칭 현장에서 교사와 부모를 대상으로 코칭을 적용하며 더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찾는 연구도 이루어져 창의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코칭모델로서 일반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모델로 제시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유아의 창의성 향상을 위해서 코칭모델이 다양한 영역에서 적용되고 그 효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유아의 언어, 자연탐구, 예술, 신체영역 등에 적용하여 효과를 주는지 비교할 수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 김경일(2020). 창의성이 없는 게 아니라 꺼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서울: 샘터.
- 김수영·도미향(2017). 긍정심리학의 코칭적응에 관한 탐색적 연구. *코칭연구*, 10(4), 53-71.
- 김영훈(2018). 압도적인 결과를 내는 공부두뇌. 서울: 베가북스.
- 김은형(2021). 메타버스 스쿨혁명. 서울: 서사원.
- 김응자·도미향·정미현(2020). 창의성과 코칭. 서울: 신정.
- 김이삭(2006). 「“행복은 찾는 자에게 열리죠”: 긍정심리학 창시자 셀리그먼, 연대서 특강 성황」, 『한국일보』, 2006년 9월 25일, 9면.
- 김일부·이소희(2016). 멘토코칭 방식에 의한 유아기 부모의 상호작용 훈련효과 : TREASURE Talk 코칭모델의 활용. *코칭연구*, 21(3), 489-521.
- 김호·김재철·박창남(2014). 유치원 교사의 수업화법과 유아의 언어능력이 유아의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19(4), 311-326.
- 권석만(2008). 긍정심리학. 서울: 학지사.
- 도미향·정미현·김응자(2011). 성격과 코칭의 이해. 서울: 신정.
- 도미향·변미옥·김병은·장자경(2013). 영유아를 위한 놀이코칭 프로그램의 적용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을 중심으로. *코칭연구*, 6(2), 5-31.
- 도미향·김응자·김경미(2020). 가정위탁 부모 양육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부모코칭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부모교육연구*, 17(4), 29-50.
- 문용린(2007). 생각의 탄생: 다빈치에서 파인먼까지 창조성을 빛낸 사람들의 13가지 생각 도구. 서울: 에코의 서재.
- 박병기(1998). 창의성 교육의 기반. 서울: 교육과학사.
- 박시내(2010). 가족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성경 속 코칭질문 분석.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은화·이진아(2018). TREASURE Talk 코칭모델을 활용한 한부모 어머니의 상호작용 훈련 효과. *한국가족복지학회지*, 27(4), 19-30.
- 박인영(2018). 창의성 기법을 활용한 유아의 사회적 창의 증진 프로그램개발 및 효과. 수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현정(2018). 영유아기 교사와 부모의 학대 언어 제한과 촉진적 상호작용을 위한 교육훈련효과: TREASURE Talk-CCTV 모델의 활용.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송인섭·이신동·이경화·최병연·박숙희(2001). 영재교육의 이론과 방법. 서울: 학문사.
- 신인덕(2020). 유아의 기질과 교사의 교수효능감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유아의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인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에노모토 히데타케(2004). 마법의 코칭1. 황소연 역. 부천: 새로운제안.

- 유경훈(2003). 중학생의 창의적 사고능력과 자기효능감, 자기결정성 동기 간의 관계.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4(3), 1157-1163.
- 이경화·고진영(2003). 자아개념 검사. 세종영재교육연구원, 서울: 학지사.
- 이성진(2001). 행동수정. 서울: 교육과학사.
- 이소희(2008). 멋진응원 코칭. 서울: 신정.
- 이소희(2019). GOD 4N 리더십코칭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Ⅰ). 코칭연구, 12(4), 5-33
- 이소희·김일부(2020). 글로벌 영리더 육성을 위한 Mind Way 코칭모델 도구 프로그램의 개발과 체계화에 관한 연구(1). 코칭연구, 13(4), 5-34.
- 이소희·박은화(2016). 영아기 어머니의 대화기술 향상을 위한 TREASURE Talk 코칭모델의 활용 가능성 탐색에 관한 연구. 부모교육연구, 13(1), 5-22.
- 이신동·최인혁·김기명·고운정·홍종선·김경은·김소연(2015). 지능과 창의성의 프레임. 경기도: 양성원.
- 이은미(2021). 크리스천 아동을 위한 십계명 놀이코칭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효과: 레고활용.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연화(2020). 자연물을 활용한 창의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종임·도미향(2021).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코칭역량이 영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부모교육연구, 18(4), 5-25.
- 이지영·고진영·김경철(2021). 유아교사가 생각하는 칭찬의 의미. 유아교육연구, 41(3), 339-358.
- 원종순(2020). GOD 4N 모델을 활용한 크리스천 유아 교사·원장의 리더십코칭 프로그램 구성과 적용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민정(2020). 개인 간 ‘갈등코칭’의 대화모델에 대한 탐색적 연구 -VNOW모델-.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현주(2020). WISE 코칭모델에 따른 행복의 주관성 연구: Q방법론적 접근. 코칭연구, 13(4), 77-102.
- 전경원(2009). 창의성 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창지사.
- 전경원·박인영·김경숙·오한나(2020). 발문중심의 유아 창의성교육. 파주: 정민사.
- 전경희(2007). 유아를 위한 창의적 학습활동. 서울: 태영출판사.
- 정소윤(2008). 유아의 창의성과 자아개념과의 관계. 창의력교육연구, 8(1), 31-47
- 정진우·우수명(2007). 부모코칭-내 아이를 행복한 천재로 만드는 비밀. 서울: 아시아코치센터.
- 조영호·장경원·고수일(2017). 창의적 리더십이 교육과 세상을 바꾼다. 서울: 학지사.
- 조성진(2008). 코칭 ABC. 서울: 심포지움.
- 조성진(2009). 코칭이 자기효능감, 성과 및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감성지능의 조절효과.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성진·정이수(2018). 국내 코칭 연구 동향 및 향후 연구 방향: 진전(1995~2017)과 전망. 한국인적자원개발학회, 21(3), 249-313.
- 조성진(2020). 코칭과 경력개발. 파주: 양성원

- 최인수(2011). 창의성의 발견. 서울: 쌤앤파커스.
- 폴정(2009). 폴정의 코칭설명서. 서울: 아시아코치센터.
- 한민아·도미향(2021). 구성주의이론의 부모코칭 적용에 관한 탐색적 연구. 부모교육연구, 18(1), 5-23.
- 한순미·김선·박숙희·이경화·성은현(2005). 창의성: 사람·환경·전략. 서울: 학지사.
- 홍혜경·김명화·김세루·문병환·김경숙(2016). 창의적 사고와 논리 논술. 서울: 학지사.
- 교육부(2021).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 발표자료. 2021-11-24.
- 교육부(2018). 2019 개정 누리과정 해설서.
- 하브루타수업연구회(2015). 질문이 있는 교실. 서울: 경향BP.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Freeman.
- Berger, W. (2014). 어떻게 질문해야 할까. 정지현 역(2014). 경기도: 21세기북스.
- Brian Tracy. (1993). 성취심리. 홍성화 역(2003). 서울: 씨앗을 뿌리는 사람.
- Comstock, B. (2018). *Imagine it Forward: Courage, Creativity, and the Power of Change*. Kindle Edition.
- Cropley, A. J. (2001). 창의성 계발과 교육. 이경화·최병연·박숙희 공역(2004). 서울: 학지사.
- Csikszentmihalyi, M. (1996). 창의성의 즐거움. 노혜숙 역(2003). 서울: 북로드.
- Diener, R. B. & Dean, B. (2007). 긍정 심리학 코칭. 서희연 역(2009). 서울: 아시아코치센터.
- Erikson, E. H. (1950).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Norton.
- Gardner, H. (1982). *Developmental psychology*.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 Holt, J. (1983). 아이들은 어떻게 배우는가. 공양희·해성 공역(2007). 서울: 아침이슬.
- Ichiro Hoshi. (2006). 어느만큼 말하는만큼 아이가 달라지는 부모의 말. 김수진 역(2021). 서울: 더블북.
- Jeanne Siaud-Facchin. (2002). 어른이 된 영재들. 이은주 역(2016). 서울: 와이젤리.
- Nisbett, R. E. (2005). *The Geography of Thought*. Free Press.
- Makoto Takahashi. (2002). 창조력사전. 조경덕 역(2003). 서울: 매일경제신문사.
- Michèle, R. B. (2014). 내 아이를 키우는 상상력의 힘. 유향란 역(2016). 서울: 문예출판사.
- Peterson, C. (2006). 긍정심리학 프라이어. 문용린·김인자·백수현 공역(2009). 경기도 안양: 물푸레.
- Robert, B. D. (2010). 긍정심리학 코칭기술. 우문식·윤상운 공역(2011). 안양: 물푸레.
- Robert Scott, R. B. & Michèle, R. B. (1999). *Sparks of genius : the thirteen thinking tools of the world*. 생각의 탄생. 박종성 역(2008). 서울: 에코의서재.
- Schunk, D. H. (1981). Modeling and attributional effects on children's achievement: A self-efficacy analysi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3, 93-105.
- Sternberg, R. J. (2003). *Construct validity of the theory of successful intelligence*. In R. J. Sternberg, J. Lautrey, & T. I. Lubart (Eds.), *Models of intelligence: International perspectives*, (pp. 55 - 77).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한국코치협회. www.kcoach.or.kr (2021.12)
- CIT코칭연구소. www.citkorea.co.kr (2021.12)

Abstract

Development of the WISE-CANDY Coaching Model for the Improvement of the Creativity of Early Childhood

Lee, Jin-Ah* · Lee, So-He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d verify the validity of a coaching model for improving the creativity of early childhood. First, we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creativity improvement of early childhood and coaching based on theories related to positive psychology, coaching, and creativity. Through this, the WISE-CANDY coaching model is developed to apply practical and specific methods that can elicit potential talents of early childhood in an efficient way with a coaching approach. The developed coaching model uses the existing WISE coaching model developed by Lee (2008) as a conceptual model and extends the CANDY coaching model developed by researching the elements necessary for creativity improvement into an execution model. An expert survey was conducted to review the validity of the coaching model developed in this study. The participating experts were six professional coaches who have a doctorate degree, wrote a doctoral dissertation on coaching, creativity,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served as the director of daycare centers and kindergartens, and the director of the Creative Education Center, and have Korea Associate Coach (KAC) and Korea Professional Coach (KPC) qualifications in South Korea. We received feedback on questions about the model development configuration data (4-point Likert-type scale) and interview questions via e-mail from experts, and the fit of the model was reviewed by modifying and reflecting on the feedback.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validity of the WISE-CANDY coaching model was confirmed with an average of 3.51 poi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amined in theoretical, methodological, and practical aspects, and the developed coaching model confirms the practical applicability of coaching in the creativity improvement program of early childhood.

Key Words : Creativity of early childhood, Creativity Coaching, WISE Coaching Model, CANDY Coaching Model, creative conversational skills.

* Department of Child & Youth Welfare, The Graduate School of Sookmyung Women's University.

** Emeritus Professor, Department of Child Welfare, Sookmyung Women's University